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四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山雨欲來風滿樓 ─最近의 三大風景─

一

무릇 事業을함에는方針이 잇서야하고 方針을세우는데는 먼저理想이必要한것은 누구나 다 아는일이다。이것은 一個人에 잇서서도 그러하고 一團體에잇서서도 그러하고 一民族에잇서서도 그러하고 一國家에 잇서서도 그러한것은勿論이다。다시말하면 한民族에잇서서 엇더한最高理想이업다하면 그民族은民族으로서의經綸이업슬것이오 따라서 發展도업슬것이다。또 한國家로서一定한理想이업다하면 따라서政策도업슬것이오 政治다운政治가잇슬수업슬것은 모든歷史가 이미證明하는事實이다。

二

宇內의大勢를 살혀보면、첫재우리는 『非常時』라는風景에接하게된다。이 常時라는말은 各自의處地와境遇에 따라서 解釋도다르고 認識도갓지안타。日本은日本의非常時를가지고 米國은米國의非常時 歐洲에는歐洲의 極東에는極東의非常時等等、"非常時라는말은가트나 그色彩와意味는 다르다。그러나 全世界가 全人類가 非常時라는 雰圍氣에 싸혀잇는것만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그러면 우리는 이非常時라는 深刻한風景을 엇더케보고 엇더케認識하고 엇더케對하여야올흘것인가。한떨기꼿을보고도 웃는者와 우는者가 다르거든 이가티 크나큰風雲을눈압헤바로보면서 아모러한感覺이업고 이러타할認識이 업다하면 果然말이될것인가。濛濛한黃塵이압을가리어슨가 疊疊한 雲霧가眼界를막아섯는가 아무리 아모러한遮斷이잇다할지라도 五官이잇는사람으로서 非常時가 무엇이라는認識과非常時에處할理想을 가지지못한다하면남과가티살어갈資格을 가젓다고하기는어렵지아니할가。

三

둘재로 우리는『인푸레슌』이라는 서투른風景에 對하게되는나。『인푸레슌』이란말을 財政經濟的으로 解說하자하면 相當히長皇하여질것임으로 여기서는말자하나 아니하거니와、葉錢만쓰든社會에 白銅貨가생기고 白銅貨대신에紙貨가생기게될때 우리社會에서는 돈갑시헐해젓다는말이 一時流行되얏다。이돈갑이헐해진다는말이곳 『인푸레슌』을說明하는말이니 專門的으로는適切치못할는지모르나常識的으로는이말가치알마즌說明은 업다。그러면 各國은무슨까닭에 다투어『인푸레슌』政策을取하게되는가。아니엇지하야 이政策을取치안코는견될수업시되얏는가。이것을알고자하면 적어도人文發達의經路와近代産業의過程과 資本主義의機構를追究하지아니하여서는안될것이다。다시말하면 돈이흔해지고 물건갑시올흔다 이것은무슨理致로이러케되며 이現象이 우리에게엇더한影響을주는것이며 이러한가。우리는두렵건대 우리들中에 정말우리의現在와將來를爲하야 우리의압헤닥처오는『인푸레슌』風景을 考察하고 認識하고 對備하야만한 準備가잇는지 업는지 적지아니한疑問을가지지아니할수업다。

四

셋재 우리의압헤는 軍備戰爭의風景이 노혀잇다。三月十六日에 獨逸이 벨사이유條約第五篇軍事條項을一方的으로 廢棄한以來 軍備縮少라는文句는 新聞紙上에서 자최를감춘지 오래이오 列國은 「스트레자」에서「쥬네브」에 或은 두어 數次會議 新設或은復活하는 同時에 海陸空을通하야 모든軍備를擴張하기에 汲汲하고잇다。그러나 이에對한 對策이나 方針은 一이어니와 이와가튼風景이 人類의 압헤무엇을가저오라하는것이지 아니하며 人類의한分子인 우리로서도 이를 가지게하는同時에 우리自身으로서도 엇더한覺悟를 가지지 아니하여서는 안될 다。이와가치보아온다하면 山雨欲來風滿樓라고할지 世界는지금 다음에올風雲의 무엇인지 正히緊張의度에 到達하엿다고할수잇다。

第二爆彈抗議

『聯盟理事會엔 問責權限이업다』

決議參加十四個國에 對하야 獨逸政府直接抗議

히틀러總統

【電通伯林二十日發】 獨逸外務省은 四月十七日聯盟理事會의 對獨決議에對한 獨逸政府의 抗議通牒을丁抹을包含하는 理事國十四國首都에서 各各當該政府에對하야 同時에通達하엿다는뜻을 今日發表하엿다 그리고該抗議文正文은 直時二十日午後六時(日本時間二十日午前一時)伯林에서 發表되엿다 全文은如左하다

獨逸政府는 去四月十七日 聯盟理事會에서 決議를採擇하야 獨逸에對한 裁判官의 地位를 스스로取한 諸國政府에對하야 如斯한權限이 어대잇느냐를 問責하는者이다 獨逸政府는 理事會의決議는 獨逸에對하야 새로히差別待遇를하려고 計畫한 것이라고 認定한다 따라서 獨逸政府는 右決議를 가장 斷乎하게 拒否하는者이다 獨逸政府는 右決議中에 取扱한 諸問題에 對하야 그 獨自의 見解를 近近告知할터로 그權利를保留한다

【伯林二十日發聯合】 獨逸政府가 二十日各國駐劄大公使를通하야 各各當該國政府에 手交한 理事會의決議에對한 正式回答文의 內容은如左하다

一、獨逸政府는 去四月十七日 國際聯盟特別理事會에서 可決된 佛國政府의問責決議에關하야 이에贊成投票를行한 諸國은獨逸의 裁判者로서 行動할 權利를가지지아니한것

一、右決議는 獨逸에對하야 새로운 特殊한待遇를 行하려는企圖인것

一、따라서 獨逸政府는斷然이것을 承諾할수업다는것을 聲明한것이다 獨逸政府는 決議中에 言及된諸問題에對하야 近近그立場을表明할意向이다

第二爆彈抗議와 그反響

獨逸의 抗議文 豫想보담은穩健

壽府에는別無反響

【電通壽府二十日發】 獨逸政府가 聯盟理事會決議參加國에 對하야 發한抗議書는 壽府에는아모런反響도 喚起하지아니하엿다 聯盟事務局은二十日午後四時에 至하기까지 獨逸政府로부터아모通告도업고또별로期待하고잇는것도아니라고말하고 非常時가른沛湃한空氣를示하고잇다 普通聯盟理事國에對하야 文書를送達할時는 聯盟事務總長을 通하야 理事國全部에 通達하는手段을 取할것인데 獨逸은 一九三三年 十月 聯盟脫退後는 聯盟事務局을 全혀無視하고 今回도 直接理事國 十四個國政府에 抗議覺書를提出한것이다 때마츰復活祭로壽府駐在의外交官多數는不在이나 二、三滯在中인外交官의意向을듯건대 모다獨逸의抗議發送을 인제는安堵의숨을내쉴수잇다는態度로 맛고잇다 이것은彼等이 獨逸은聯盟에對하야다시激烈한態度를取하고 極度의憎惡를公然公表할것이아닌가고危惧하고잇기때문이다 統으로서는此際強硬한態度를示하는以外方策이업슬것은 明白하다 特히今回의獨逸通牒은米大陸의輿論에呼訴하려한것으로疑心할餘地가업다 要컨대單히 通牒의字句가強硬하다고 額面대로이것을看取할수는 업다 特히獨逸政府의通牒은不遠第二聲明을 暗示하는것인대 獨逸이何等積極的 具體的提案을하기까지는 政府로서는何等行動을取하지안을것으로 思惟된다

獨逸抗議覺書 伊政府에通達

【電通羅馬二十日發】 獨逸의理事國에對한 抗議覺書는 二十日駐伊獨逸大使로부터 伊太利政府에 通達되엿다

強硬字句는 對內的政策

伊는問題視안는다

【羅馬二十日發聯合】 伊太利政府外務省當局은 二十日非公式으로如左히말하엿다 獨逸政府의 強硬抗議는 主로對內的政策에서나온것이오 히틀러總統一流의 國本主義政策때문이라하야 問題視하지안는모양인데

穩健派優勢로 抗議文意外軟化

爆彈宣言은今後?

【電通伯林二十日發】 獨逸政府가 二十日聯盟理事國 十四國政府에 發한獨逸問責決議에對한 抗議書는單히 決議를拒否한데不過하므로 가만히 豫想한 第二次爆彈宣言的性質의것이 아닌것은列國에安堵의비를 與하고잇는데 消息通方面에서는 今回의抗議書가比較的低調가된것은 政府部內의穩健派가強硬派를 牽制한것에依한것으로 抗議書의末尾에 獨逸政府는 決議中에取扱한諸問題에關하야 그見解를發表할權利를保留한다고附加하고잇는點으로보아 今後列國이 끗까지 獨逸再軍備의態度를 고치지안는限 斷乎하게 第二次爆彈을 投擲할것이라고觀測하고잇다

駐英獨大使 抗議文手交

英國外務省서

【電通倫敦廿日發】 獨逸政府의壽府理事會決議에對한 抗議文은二十日午後零時五十五分 獨逸大使側으로부터 英國外務省에提出되엿다 抗議文의內容은 特히英國을指目한것이아니오 聯盟理事會問責決議의無效를 指摘하고다시詳細히檢討한後 獨逸政府의今後에取할態度를表明할 權利를後日에保留한것으로 相當히 憂慮되엿던獨逸聯盟不復歸宣言과如한 字句는包含되지아니하엿다 消息通은獨逸의右抗議를指目하야 單히文字上의議論만으로 爆彈宣言이니하야 評할것은아니라고하고잇다

獨機、佛國內偵察

國境人心極度緊張

【메스二十日發聯合】 獨逸飛來의報는 空氣險惡을示하고잇는알사스、로렌國境一帶의 人心을一齊히緊張의 極度에로驅使하고잇다 록쇠부르國境前方에서目擊한佛國將校의報告에依하면廿日나치스章을부친 獨逸軍用機二機가越境하야 佛國領土國境一帶의偵察을敢行한後 獨逸領土로飛去하엿는데 그後의調査에依하면 右二機는고브렌와리飛行場에서飛來한것으로 判明되엿다 國境地帶의人心은右獨機의不法越境에對하야 極度로憤慨하고잇는데 政府當局도 一段事情이究明한後에 어떠한決定的行動에出할것으로 보인다

『具體的內容全無 無視하여도조타』

佛國外務當局見解

【巴里二十日發聯合】 獨逸政府의抗議에對하면 佛國政府當局은 될수잇는대로 이것을無視하는態度를가지고잇스며 라발外相도二十一日부터는豫定과가티 이스터(復活祭)休暇로 數日間田園에保養에 赴할터이다

右 獨逸政府의抗議에對한外務當局의見解를 要約하면如左하다

一、佛國은 獨逸政府의抗議通牒은 豫想한것보다 매우微溫的의것이라고 解釋하고 右는獨逸外務當局이히틀러總統一派의 極端論者를 充分抑制한것으로 大體의情勢는 오히려樂觀할수잇는것으로보인다

一、뿐만아니라 抗議內容은實質的으로는何等具體的問題에觸하지안코 外交的重要性은甚히적으므로 全혀無視하더라도相關업는것이다

一、더욱이 獨逸問責決議案은聯盟理事會가 全體로서行한것이므로今回의獨逸政府의 抗議에對하야 各國이個別的으로 回答을獨逸政府에送達하는일은잇슬수업고 따라서今回의 抗議에對해서는各國은 罪히들어들을程度以上에出하는것이아니다

一、獨逸의抗議內容은極히純理論的이오 實際에則하지아니하엿슬뿐만아니라 回答을要求하는것이아니므로佛國으로서도此際에直時어떠한行動에出하지아니할것이다

一、獨逸政府의抗議는 베르사이유條約이 特히獨逸에對하야差別待遇를하고잇는것을 述하고잇는데 右는獨逸政府가그面目保持를爲하여서는 條約을根本的으로變하는 行爲에出하려는者이라는 決意를表明한것에不外하다 佛國으로서는 將來一層獨逸의態度에 注意하지안으면안된다

比島日綿布防遏

【東京電話聯合】 日本綿布의海外市場의輸入防遏對策은 일즉이英領印度에서 實施하고 다시 和蘭政府가 蘭領印度에서輸入制限을行하엿는데 最近에는米國에서도 또日本綿布가問題가되어 드듸어綿業調査委員會에對하야 外國綿布輸入의 米國綿業에及하는影響을調査시키기로되엿다고한다 이리하야 日本綿布의海外進出은 漸次難關에逢着하고잇는데二十日某所着電에依하면 比律賓政廳에서도 目下綿布의輸入制限을考究中이라고한다 比律賓市場에의 輸入綿布는 從來輸入總額의 九十三%는日米兩國에서 占하고잇서 이兩者의輸入狀態는米國品이 壓倒的이엿스나 最近에는 日本品의五十二%는日本品、四十%가 米國品이되야 드듸어米國綿布의 輸入狀態가 逆轉하게된事情에依하야 目下比島政府는 日本綿布의輸入防遏策을研究中인대 來七月開會의 比島議會에서 무슨對策이 講究될것으로보인다 比島政府는 曩者米國以外로부터의輸入商品에對하야 關稅引上을企圖하엿스나 日本政府의抗議에 關稅引上을 中止한經緯가잇슴으로 再次同樣의對策을講究할수업는지 그 進行은 매우注目된다

日曜氣配

期米 地場은上資成이나高値에는軟派賣物이潛在하야不伸氣迷가되고 材料待望裡에見送하야 氣配不變

株式 現物은多少買物이잇스나 定期에는아모買材料가업서前途豫想困難에賣買閑散氣配不變

入新	九二、五〇
東新	一四七、二〇
鐘新	一二四、七〇
日産	九六、八〇

綿絲 不變

人事·集會

▲韓[illegible]氏([illegible]士) 咸南新興郡下元川 西陽里 本宅에서遭內艱

▲金[illegible]氏 京城府內積善洞一五[illegible]番地 自宅에서遭外艱

世界縮史

審議會官制決定

岡田內閣의唯一標榜인 內閣審議會의設置工作은 마침내最終段階에入하야 十九日閣議에서 審議會官制를決定하고 來二十二日 首相 藏相 遞相 商相等 四長老會談에서 最後的協議를遂하기로되엿다 右會議後 岡田首相과 高橋藏相은 委員候補에對하야特히熟議할方針으로 個人的으로나 政黨的으로 新任交涉을開始할터인데 政友會는 어데까지 委員을내이지안흘方針임으로 萬一政友會는 바라기는 政府가自由採用方針을 取하게된다고한政府對政友會關係가 더한層險하게될것임으로 今後政局의推移는더욱微妙하게되리라고觀測된다

徐軍成都進出

中央軍이 貴州에서 朱、毛共産軍防備에 全力을集注하고잇는 사이에 四川省의共産軍徐向前部隊는 突然西進을開始하야 嘉陵江을건너 江油、中壩、彰明을占領하고 目下 綿陽安縣을向하고잇스나 四川의中央軍은이미 戰意가업슴으로 成都는非常한危險에直面하게되엿다 四川省政府는 空前의恐慌에陷하야 中央에對하야 救援을要求하는 一面成都의人心安定을 爲하야 戒嚴令이布告되엿스며 外人은 全部脫出하엿다 그리고 共産軍一千名의 潛入說이 傳하야지고잇다

蔣氏西南과妥協

蔣介石은 四川省政府를改造하야 四川을 南京政府의威令에服從케한後 鋒鋩을貴州로轉하야 共軍討伐을實상아 自己의勢力扶植을畫策하고잇스나 四月上旬以來 朱毛共軍으로부터 莫大한打擊을受하야 貴陽一帶가危機에瀕하게되매 마침내蔣介石은 從來에 西南軍의貴州入을禁하여왓음에도 不拘하고 十六日突然西南派에妥協案을提出하야 西南軍의援助를要請하엿다 此에對하야 西南側의態度는 極히冷靜하나 廣東軍二個師의 貴州出動으로보아 大體妥協이成立되리라고觀測된다

三國會談終幕

十一日 伊太利스트레자에서열린 英佛伊三國會談은 마침내十四日에終幕을告하엿다 今般會談에잇서서는 何等解決된것은업고 다만 同會談의 中心議題의하나인 防空協定問題는 다음會商까지 그決定을延期하기로되엿스며 墺太利獨立保障과 다뉴브協定問題는五月二十日 羅馬에서다뉴브會議를開催하고 討議키로決定되엿는데 그招請事務는伊太利政府가當하기로 되엿다 今回會談의目標는 『歐洲問題의平和的解決』에잇스나 問題의標的은 全部獨逸에잇슴에도不拘하고 獨逸을除外한 一部列國間의 一方的 解決案이 果然獨逸을承服식힐는지疑問이다

聯盟理事會開催

三月二十日佛國政府의 提訴에基하야 獨逸의베르사이유條項違反事實에對한 對策을審議할 國際聯盟特別理事會는 十五日非公開의形式으로開會되엿다 라발佛國外相은 過般스트레자會談에 英、佛、伊三國의 名義로 起草한 獨逸再軍備宣言問責決議案을 提議하야 採決한結果 丁抹一國의 棄權을除하고는 滿場一致로 可決되엿다 理事會는十七日此를可決하엿다 다시 會議를開催하고 條約違犯國에對한制裁는 經濟的手段을 考慮하고 그成案을作成할 專門家委員會를 十三國으로任命하엿는데 同委員會는 五月二十日까지 理事會에報告書를提出키로되엿다

土代表强硬宣言

十五日 國際聯盟理事會 土耳其代表아라스氏는 라발佛外相에 對하야 『萬一 英 佛 伊가 墺太利 匈牙利及블가리아에對하야 再軍備를許與할境遇에는 土耳其는 自國防衛上 重要地帶인 다다넬스海峽兩岸地의 武裝禁止規約의 撤廢를要求한다고 强硬한 態度를表示한바 라발佛外相은英國政府와 諒解를求할必要가 잇다고答하엿는바 右要求는 발칸軍備競爭을 挑發할可能性을多分으로 包含하고잇다

十億弗支出의 社會安定法案 米下院을通過

二千萬勞働者의 失業保險及養老目的으로

上院通過도確實?

【電通華府廿日發】 米國下院은 昨十九日政府提出十億弗支出의社會安定法案을可決하야上院에回附하엿는데 上院도通過될것이 確實視되고잇다 右는 二千萬人의 勞働者에對하야 從來의失業에對한 保障及養老金制度를 確立하려하는것이다 (寫眞은 [illegible])

警官、消防招魂祭

今二十一日午前十時 總督府構內元景福宮 勤政殿에서 第十五回殉職警察職員招魂祭並 第一回殉職消防職員招魂祭를 擧行하엿다

八面鋒

◇ 히틀러總統의誕辰을機會로 나치스獨逸의 更生을祝賀。

◇ 一個人의生死가 一民族의生死에 至重한關係를 가젓다는活標本의하나。

◇ 그만치 一個人의잘잘못이 社會의 盛衰休戚에도 至大한影響이 잇슴을알일。

◇ 『모세』는肉的으로 『요한』은靈的으로 『예수』는靈肉合一로。

◇ 釋迦牟尼는 解脫로、孔子는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 人類를爲하야 救援의方法도가지가지! 社會를爲하야 貢獻의理想도가지가지。

今日本紙四面

普校는卒業하엿스나 高普와 女高에 못가신분은

決코自己家庭의困窮과 不遇의處地를 怨望하던지 슬퍼하던지하야 父母를苦悶케하야서는 안됩니다。今般 醫學博士가 創案發見된 直感式通信敎授法으로獨習하면 高普나女高에못가시드라도 自宅을學校로 短期間에 一日겨우三時間의學習으로 容易히工夫할수잇고 卒業時는 훌륭한卒業證書까지授與합니다。이로부터 出世하기에는 男女間에 普校卒業程度의 學力만으로는不充分하다 將來立身成功을希望하는 少年들아、女子一般的學問技藝를習得하려하는少女들아。只今곳 葉書로 『朝鮮日報에서보앗다』 中學又는女學內容見本送付하라고 申込하시압。

說明書見本無代進呈합니다。 東京市神田區三崎町三ノ一 (獨學者의伴侶) 獨學修養會館

合理的이며興味잇는김흔 펜글씨熟達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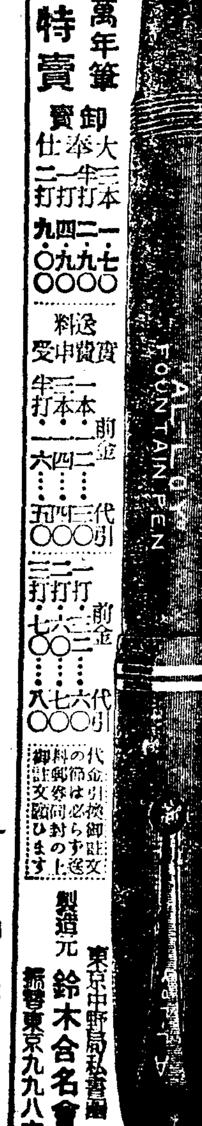
펜글씨熟達은事務의第一必要條件인바 速寫式練習法에依하면 누구든지 短時日에日本字、正字가되야 英文字、數字等이 잘쓰게된다。只今곳 『朝鮮日報에서보앗다 說明書보내라』고 葉書로申込하면 詳細說明書를 無代進呈함 代進呈함 東京市神田區三崎町 ペン字習字研究所

齒痛과 頭痛의 一回効敵 먹으면낫어 神經痛、류마치스等

恩給 立替資金의 利子를 最有利한 方法으로 京城府校洞一六〇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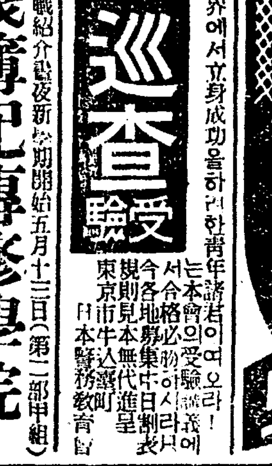
肥滿劑 身體瘦瘠한데 困難한분은 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區笄町七十一 小川藥院

アーロイ高級萬年筆 新製宣傳特賣 (十四金ペン) 大一本 東京中野局私書函一八 製造元 鈴木合名會社



官行會廳銀社商店就職紹介 新學期開始五月十三日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規則要二錢切手 京城府黃金町

巡査受驗 今本會의受驗講義에 合格必勝하시라 規則見本無代進呈 東京市牛込區 日本警務敎育會



五月新譜 流行歌 南江行 高福壽 ▲싹트는봄▲ 金蓮月 재스쏭 집시의달 青空 金蓮月 新作 서울구경 申不出、金曉山 오케-레코-드 (四月廿日發賣)

甘藷苗 販賣

毒掃丸

家庭和樂의 元素 家傳秘方 調經液 江景邑黃金町四一 勉堂商會

仁丹 仁丹 仁丹

當選謝禮 仙掌金融組合長 徐廷昱

當選謝禮 牙山金融組合長 沈仁澤

臺灣에大地震

判明된死傷者만百卅餘名
到處에鐵道沈下、被害莫大
臺中地方을中心으로

【電通臺北二十一日發】이십일일아침여섯시경 대북(臺北)에 상당히 강렬한지진(地震)이잇서 시민의 잠을일깨웟는데 대중(臺中)을 중심으로 만흔 피해가잇서 풍원(豐原)후리(後里)사이의 철교가추락된외에 갑남(甲南)청수(淸水)간의 선로도 파괴되엿다 그리고 대갑(大甲)에는 불이일어나 연소중인데 큰불이될 염려가잇다 대중시내에는 도괴가옥이 상당히만흐나 그수는 상세치안타 전신전화도 대중을 중심으로 불통중이다 피해상황은 방금 대중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철도의피해는 종관선 산수선(山手線)제륙십칠호 턴넬이 함락되고 또 그입구가 귀렬되고 제팔턴넬 중앙이 함락되고 종관선 해안선청수(淸水)갑남(甲南)사이가 일백미삼십칠센치 침하되고 기륭(基隆)기점일백륙십키로의 장소가 륙십센치나 침하되엿다 그리고 신죽주(新竹州)의 피해는 현재 판명된것만도 다음과갓다

▲香山、苗栗地方全滅、詳細不明 ▲南勢方面死者三十名、負傷者六十名 家屋倒壞二百五十戶 半壞五百戶 ▲竹東方面死者十五名、負傷二十五名、家屋倒壞百五十戶 半壞八十戶

妻家를襲擊 四名을殺傷

龍岡郡下의大慘劇

평남룡강군귀성면석성리(龍岡郡貴城面石城里) 김봉구(金鳳九)(三一)는 이십일일밤일곱시에 비수를가지고 그의 처가를 차저가서 그의 장모와한메누이류성녀(柳姓女)(二七)를 질러죽이고 처남과장인도 찔러서 생명이 위중하다 한다 범인은 그와가튼 흉악한 범행을 하고서 그의형집에 도망해 가서 잇는것을 소관경찰서원이 달려가서 체포하여다가 방금취조중이다 그는작년에 그의안해와 리혼을 하고이래까지 지루한사랑이 다호출으로 지내왓섯는데 미련이 남어잇든남아지에 평소에지녀고잇섯든 반수로처질투에 이기지못하야 범행을 하게된것이라한다 진남포경찰서와진남포검사국에서는이십일일오전에경관과검사가 현장으로 출동하야시체를검시하엿다

出家少婦

경긔도광주군중부면엄리(廣州郡中部面嚴里)의 생면오옷쇠(?)의 안해정지순(鄭芝順)이라는 스물세살먹은소부는 가정불화로말미암아수일전에서울에도망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라다니다가이십일일오전에서대문경찰서원에게발견되어방금그경찰서에서보호중이다

日曜자三春의絶頂

人波·長安에滿潮

地方團體의破記錄的入京
處處에鄕客의長蛇陣

▲이십일일은 일요일이자때마침 봄의 클라이막스 일커는 쾌청하여서 남서(西南西)의 미풍(微風)을가미하야 금년의 봄씨ー슨에드려서는 전에도 뒤에도업슬절호의찬스요 하로의상춘에 배푸로센른 마침이다. 거리는 군중에도파회문(光化門)네거리로부터 종로사정목네거리까지 아스팔트가 척ー 회일만큼오고가는사람이가득실렷고 전차 뻐스는전부 초만원ー동편으론창경원(昌慶苑)의저므러가는 『사구라』를중심으로서편 경복궁(景福宮) 대권리에 만드러노흔 박람회를한거번에 한목보려고 왓장물려올라온 지방의 유람객수만명……서울로도사람들……스리와 사복경관까지 총동원이 되것이다.

▲경복궁안에는 대부분이 옷깃에 표적을부친 지방의단체객들이다 박람회래야 그다지크고깁흔규모의것도아니요 큰상점거리를 잡간이전해다 노흔정도의 것이엇만 금융조합에 빗을내엿든지 공동한곡가의 경기인지 지방사람단체로 몰켜올 치고잇다 그러나그들에게는 새뜻한박람회의 시설보다도경회루(慶會樓)의 예가튼자래와 지다남은 꼿차최가 일층보람잇는것가텃다

▲창경원은 그래도 경성의봄의정(精)을모아 노흔듯한관이잇서일장자의몰려드는 사래가 땀곳에비길데가아니다『사구라』는 이미 지기시작하야 그야말로 청명시절에설분분(淸明時節雪紛紛)으로이 봄의마지막 운치를이루엇다 당일정오까지에 입장자가이미 이중삼이되어 뼈ー트가 장변에그

▲한강은 그다지 만흔사람이 오지는 아니햇스나그래도 하생들울내것든 파라솔이 물에든뻐ー트두히널려잇고그중에는이분의 영군들의 해수욕복입은 그림자가 아숙도 안보엿슴은그래도 기후의 명령!

▲장충단(奬忠壇)은 엄장공문이엇는데 지역이넓고 숲이그윽하야외진곳이 만흔만큼 남의눈을꺼리는 쌍쌍이남녀의장시도피소(逃避所)를 경치여시대랑의 (銀春客)으로 성황을이루엇고

▲경성운동장의금번의스포ー츠씨ー슨의 문열기로 정구대회가잇고오후부터는축구의국제경기가잇서금년최초의성황을이루엇다

(사진은 창경원내『右上』경복궁내의잡답『右下』일요의한강『左上』정구대회『左下』타원내』)

仁川에發疹지부스

【仁川】근일인천동호에 발진(發疹)『지부스』가발생하야십일간 교통차단을하얏는바 물면시내궁정(宮町)근방에서 오명의 신

高句麗時代寶物 彩畵籠의倫敦行

英國皇帝卽位二十五週年記念 世界考古品展覽會에出品

【平壤】금년가을영국론돈에서거행되는 영국황제폐하의 즉위이십오주년긔념에는세계각국사절이운집하게되어 빅토리아녀왕시대에며려지지안는세계적사교의대회라판(豪華版)이전개될모양인데이때에한의식을장식하기위하야 세계고고학계를 총동원식혀 세계적최고미술품의 정화(精華)를 모도와대전람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중국에서는 일만여점에서도 출품을준비중이요 일본내지에서도 출품을 준비중이라고한다 그런데 조선서는 소화칠년가을평양대안 대동강면남정리(大同江面南井里)고구려시대의 유물인세채최고의 목곽분(木槨墳)속에서 출토된 채화롱(彩畵籠)은 당대의 문화의 극치를자랑할수잇게 그러진 인물화(人物畵) 가드레잇는 정교를극하는 칠화(漆畵)로그시대의 풍속까지 알수잇는 귀중한자료이다 또한 현재의평양종(平壤種)의원종(原種)이라고 볼수잇는점이 수십종이나 이채화롱속에들어잇서 이천여년전의 고대문화를 추억할수잇는 진귀한사료(史料)로 넘우나 유명하므로이것을대표로 출품하게되엿다

이리하야론돈전지에모혀드는전세계의고고 학자들에게 우리선조의솜씨를 보혀주게될 것으로따라서평양의명성도널리선전될것이다 그런데 이채화롱은 방금경성총독부박물관에 보관되여 잇스나미구에평양 박물관에서 보관케될것으로 칠기보존에 대해서는특별한차광(遮光)과보습(保濕)의 설비를 필요로하므로 특별진렬『케ー스』를 제작하여 보관케될것이다 하여튼우리의 선조가만드러노흔 고대문화예술의 극치러며표품 채화롱이 세계무대에진출케 된것은 우리의자랑인동시에 큰긔대를 가지게한다

天氣豫報

晴後曇

高氣壓은 日本의東南海上에서 關西地方을거처 朝鮮으로부터 黃海로펴지고 低氣壓은黑龍江下流에서 東進中이다 全朝鮮이大體로日氣가조타. 氣溫은釜山十四度와 新義州三度間에잇섯고 明日은 日氣가조타가 차차흐려진다

昨日最高 十六度三
最低 五度
今日最低 八度六
今日正午 十五度三

新綠의五月을걸처 本社主催 產業視察團發程

ー名所舊蹟을兼한產業都市의巡禮ー

來二十六日京城驛出發

본사가 금년에 삼대경사를기념하야 하는 사업의 하나로 일본내지의 산업시찰단(產業視察團)원을 모집한다는말을 보도가 잇자경성은물론 각지방으로부터 참가신청이 답지하야 정원을돌파하엿슴으로 불원에 마감하고 모든준비를 정제하고 오는 이십륙일 경성역을 출발하게되엿다 일행은 산업의 시찰은 물론이려니와 명승고적을 두루 탐승하게되는바 새로운 오월의 신록을밟고 각지를 순례하는 일정은 다음과갓다

李紅光軍二百名 穀物馱馬를掠奪

【安東】이홍광(李紅光)일파는 지난 십팔일 관전현(寬甸縣)내에 침입하야 곡물을실은 태마(馱馬)를 약탈하여 가지고 도주하엿는데 방금 토벌대가 추격중이다

寺奉公普校 學年延長運動

【班城】경남진주군사봉공립보통학교(寺奉公立普通學校)는 아직까지 사년제(四年制)이므로 일반은 학년연장을 열망하고 오든중 근래에와서 지원자가 격증함으로 그실현을 노기게되어서 작년십이월경에 지방유지의발긔로 면민대회(面民大會)를 개최하엿든바 학년연장긔성회를 조직하고 교섭위원(交涉委員)을 선정하야 군당국에까지 진정을 하엿스며 기부금(出金)일천삼백여원도 불원간 징수가 완료될것이므로 머지안어실현을보리라는바 긔성회와 교섭위원을 선정하엿다

運動競技

씨ー슨劈頭의 庭球大會 今日開幕

今年씨ー슨에드려 처음열리는庭球戰! 朝鮮스포ー츠社主催의第二回中央庭球大會는 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出場選手四十七組로서 盛況裡에열린바 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京(李正龍 朴奇元) 4	0	專醫(張寧均 趙東勳)
遞信(小 朴英川) 4	0	府總(鐵業律 金鍾朝)
殖銀(藤田 神原) 4	0	專醫(李鍾元 元鍾洛)
商銀(河村 金時浩) 4	1	高醫(李相達 尹容讚)
徽文(閔丙琓 崔炳由) 4	0	實專(李鳳基 李正玉)
殖銀(嚴武龍 李鍾鎬) 4	0	專醫(李尹鎬 金德壽)
實業(島川 金仁福) 4	3	遞信(鈴木 元大奎)
法專(李正來 趙誠鎔) 4	1	專醫(徐炳烈 金正甲)
鐵道(張元珍 浪邊) 4	1	培材(趙尙憲 南昊植)
專實(白潤輔 宋在景) 4	1	府總(金熙瑗 車應烈)

▲期成會長權然宗▲副會長鄭煥綱▲幹事河海振氏外四十餘名▲交涉委員鄭煥綱 河海振 李壽鎬 李德浩

關西體育會定總

【平壤】關西體育會에서는二十日午後六時부터 府內巡愛里朝鮮日報社平壤支局上層에서 定期總會를開催하고 昨年度事業及會計決算報告가잇섯고 今年度에進行할 『스케쥴』을決定하엿다한다

獨逸"슈메링"『빼어』에게挑戰

世界拳鬪爭覇

世界重量級拳鬪選手權者 『맥스·빼어』에의 挑戰者는 얼마전第十四位에잇든 新進 뿌라독크『가推薦되엿는데 그는最近에 挑戰資格者의一人인 『라스키ー』를擊破하고一躍米國의 花形이되여今年最初의挑戰者資格을 어덧스나 强豪『하마스』를 KO시킨獨逸의巨人『슈메링』의 挑戰試合이 一層重要視되는바 目下獨逸의『푸로모러』 의로제바ー그와『빼어』의『매네저』헤리『포프맨』사이에 契約을交涉中임으로『빼어』對『슈메링』의世界選手權試合은 來六月十七日頃에 倫敦이나 羅馬에서擧行할모양이다

三大慶事記念事業

本社主催產業視察團

出發時日 四月廿六日 (往復十九日間)

視察地 京都、福井、金澤、日光、東京、橫濱、大阪、奈良、神戶、別府、八幡

꼿속에淋疾

덤벙거리고 날치는분은病

武藤 宇佐美 兩博士의推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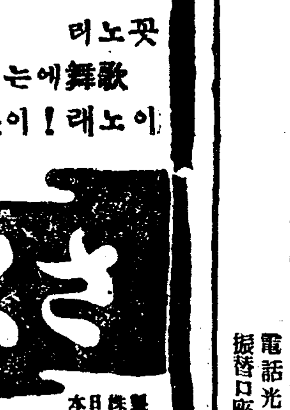
ネオヂリン(네오지린)을

잡수시고오줌을보시면곳압니다

藥價……一圓……二圓……五圓……十圓 各藥店、百貨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振替京城四五七番

돈버리大王



大型各種 (가다로구進呈)

記念景品附賣出 一等五千圓 外各等

ㄹ이ー도式穀物膨脹機 五合의쌀이八升의米菓子가된다

製菓法傳授함

大阪市西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꼿노래 歌舞에는 이노래!이舞踊!

さくら日本

レコード番號 二八二九五

詩·時雨音羽 曲·佐々紅華

唄 藤本二三吉 中野忠晴 音丸 伊藤久男

日本蓄音器商會 株式會社 製造發賣元

コロムビアレコード

各種樂器專門 오케ㅡ레코ㅡ드具備

京城鍾路二丁目七八番地 琴喜樂器店 電話光化門一六三七番 振替口座京城一四三〇九番

考へ物 誰にも出來る

下膳

ー課題ー

左의寫眞은日活特作映畫、大河內傳次郎主演의『丹〇下〇』이다자ー누군가?

ー應募規定ー

■아신분이廣告를切取하야 右圖의櫻花形에解答을써서 裏面에알기쉽게써주시옵

■貴下의住所姓名은封筒의

■解答은一人一答에限하야 正解者多數時는嚴正히抽籤選定하야 五百名에게시네映寫機를無代贈呈합니다。

■보낼데 東京市·青山北町·六ノ一八 東京映寫機工業所宣傳部

■應募締切은四月二十五日限으로함

■幸運의贈呈資格者로서選定된분은締切後發表와同時通知함

正解者 五百名 에게 굉장한 シネ映寫機 一臺式無代進呈함

종가 청산고음에 히 벡고

蓄音器레코ㅡ드其他諸般樂器의御用命은ー

ー創業十五週年을마저

ー店內를一新擴張하여노코

ー여러분을기다리고잇는

琴喜樂器店

京城鍾路二丁目七八 電話光化門一六三七 振替京城一四三〇九

靑年會館마진편 靑年會館向側

洋樂팬에 一大福音

二層에洋樂專門試聽室特設

콜럼비아每月洋樂新譜全部具備

每月一回本格的定期試聽會開催

其他新事業多多準備中

피아노、오르강 其他諸般樂器修繕部特設!

調律及修繕 (責任叮寧)

琴喜修繕部

봄! 과 꼿 은 노래와우슴을要求합니다 노래와우슴은 레코ー드로부터

今般弊店이創業十五週年을當하야 기나긴동안愛顧하야주신諸彦의 厚意를萬分一이나마가플가하는微意에서 店舖를新裝하는同時에 內容을更充實히하옵고 屆親切叮寧하기에努力하겟아오니 諸賢은倍前의 愛顧를엇기지마시기바라나이다

二割引提供

四月二十一日부터 二十二日까지全店商品(레코ー드、蓄音器中價格協定品을除함)을定價의 二割引에提供

紀念事業의一端으로 또五月中에斷行할豫定인本格的紀念事業의準備行動으로右記와如히十日間全店商品(레코ー드蓄音器中價格協定品을除함)을 定價의二割引에提供하겟사오니此機를逸치마소서

콜럼비아 오ー케ー 太平 레코ー드 시에론 무엇이든지 具備햇슴니다

OKEH 太平

沿岸의貿易地帶에 使用料를徵收計劃
南浦港發展上重大問題라고 關係市民은對策講究

【鎭南浦】 국항진남포에 반다시서여서야할 (?)무역지대(沿岸貿易地帶)가지 까지 업서곡물을 출회기는 불혹 평상시에도 하륙할장소가 업서 황해도 방면에서 드려오는곡물이 해주(海州)와 룡당포(龍塘浦) 방면으로 가기때문에 진남포발전상 중대문제로 아직 해결을 보지못하고잇는 이때 진남포 세관지서(稅關支署)에서는 연안무역지대 사용조합(使用組合)을 설립케하고 화물세와 계선세(繫船稅)의 명목으로

穀類俵入 一個 四厘
叺入 一個 三厘

선박(船舶)에 대하여는 계류(繫留)

一噸 三厘
一晝 三厘

한지 이일반경과하면 일일오전 오일경과하면 십전식 밧기로되엿다고 한다 그리케되면 세금을 밧지안코라도 하륙장 문제로 곡물기타가 다른지방으로 가고잇는 형편인데 다시이상과 가튼 무리한 세금까지 밧게되면 진남포항으로 드려오든 곡물은 전연 한산하게되어 진남포발전상 큰 영향이 밋게 되리라고하여 곡물업자를 위시하여 일반부민들은 대책을강구중이라는바 세관지서에서도 가매우주목되는바라고한다

開城의科學데이 盛大히擧行

【開城】 개성에서도 금년에 처음으로조선동아 조선중앙의 삼신문지국과 고려상회의후원으로 과학데이를성대히마지하기위하야자동차와오드바이에 과학데이 선전긔를달고당일오후다섯시에철도공원을떠나개성시내를 일주하엿다 그리하야/ 민일반에게과학에대한인식을 깁히깁히 너허주엇다한다

昨年十二月以來 降雨量僅五미리
平均降雨量의四分之一에不過
繼續되는平北의旱魃

【新義州】 평북에 한발이 심하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금년의 한발은수십년래에 처음보는일로 밀보리、콩、은 전멸상태이며 모시 짜려를 내일수가업시 농민들은큰 걱정이라한다 그런데 대개십이월 부터사월말까지 보통강우량의평균을보면 구십일미리요 작년과가튼해에는 구십구미리가 되얏는데 금년사월십구일까지 현재강우량은모다 이십오미리밧게 되지안는다한다 이는작년에비하야 사분지 일가량밧게 되지안는것으로 한발이 어떠케 격심한것을 말하는것이다

新義州强盜犯 青島에서逮捕

【新義州】 지난해십이월오후구시반경 부내로송정팔번지(老松町八番地)협력상점출장소(協力商店出張所)를습격하야 즉시로산전현이(山田賢一)(二〇)씨를협박후로 대양오백매를 훔처가지고 도주하엿든범인은 지난십일일 중국청도(靑島)에서 문시경(文時敏)창전(倉田)두형사의손에 포박이되엿다한다 범인은 산동성등주현(山東省登州縣)출생으로부내진사정(眞砂町)목정목조국요리점신화원(新華園)보이로잇든왕화의(王華義)라자인바 범행하고는곳청도(靑島)방면으로간 종적을알고 전긔량형사를파견하야 체포케한것이라한다

黃州郡一帶에도다 農耕을全廢狀態

【兼二浦】 희유의한발로황해도황주군일대는 춘경기마즌 농가에서가위 농경전폐의 참혹한상태에 빠저잇다는데 특히동군구성면(九聖面) 청수면(淸水面) 송림면(松林面)농수면(?)은 재래로 대동강 황주천(黃州川)과 매상천(梅上川)의한수를리용하야 묘작(苗作)을하여왓스나 금년에이르러서는 희유의한재로 한수는말으기만 하여 도저히묘판을 정리할수가업서서 압호로십일내에 비가오지안는경우에는 묘종의파종기를 놋치지안흘수업서서 금년도 도작(稻作)은전폐되는지경에잇다하며 생장도한 농도 현상을계속하는 날이면 일대한재를면치못하겟다 하야 일반농가에서는 일대공황중에 싸혀잇다한다

高原地方에도 田畓起耕不能
農家物情자못騷然

【高原】 함남 고원지방에도 희망의갈은 차저왓다고 농촌에서는 농사준비에 만반을다하여 긔경을시작하엿는데 오늘까지 한방울의비도오지안흠으로 긔경한밧헤는 립종하지못하고 더욱이 수답(水畓)에는 긔경조차할수가 업서서 묘대(苗代)정리가 곤난함으로 일반농촌인심은 극도로 흉흉하다는바 이와가티 오래동안한발이 계속되는것은 근래희유의 일이라며 하여 이압흐로 오일간만 비가오지 안는다면 절망상태이라고 한다

定州의强盜犯 四年만에被逮

【定州】 소화륙년사월십일밤열한시경 정주의 경계인불고개에 고면히 강도한일이나타나 정주군곽산 면연동(延洞)에주소를 둔 김형도(金刑燾)의미곡일백딸 ...

賃金차즈려다가 매맛고告訴질

【長津】 자난십일오전자 진군중남면풍류리(中南面豊流里)에잇는서원길목재소(徐元吉木材所)에 목재 운반을하고 삯사 개월이되여도 임금을못밧는강수헌(姜洙憲)(三一)은 전기목재사무소에가서 임금을달라고하엿더니 돈이업다하고 불순한태도로 매답이 자못포악하엿슴 ...

꽃! 꽃! (上)꽃사이로본仁川의바다 (下)乙密臺으에온

電線切斷犯 平壤에潛入說

【平壤】 금년일월이래 평남황해각지에서 여러차례나 전선(電線)을 끈는자가 속발되어 도보안과 에서는수일전관내각서에 엄중경계를하여 범인을 엄탐수사중이든바 범인이황해도에서 행상으로 일정한주소가업는김복수(金福壽)(二七)란것이판명되어 황해도와평남도에서 상중수사중의 수사망을 느리고 엄중 수사하든중 최근에 이르러 그가평양에 드러왓다는풍문이잇서 평양서에서는 그부하 형사대를 비상소집하고 철야수사를하엿스나 헛수고만하고 계속엄중수사중이라한다

龜城郡下에火災

【新市】 평북구성군자고면약사봉(龜城郡 ...) 서집에 지난 ... 불이나서 삽시간에 초가 ... 소하얏는데 손해가 ... 허씨의 모친장씨(張氏)(?)는 큰 화상을당하야 ... 중이라한다

구박에성낸銃刃 己妻를亂刺致死

【居昌】 경남함양에는 지난사월 륙일남편을 버리라는 부정한안해 를찔러죽이어 그이야기가 아주도사 의일에서 떠러지거도련에 지난 사월십오일 새벽다섯시경에 도망 양군하남면파서리(下南面巴西里) 에서 안해를식도로잔자하야 자는 사람을 놀라깨어게한 가정참극이 잇다―내용은 전과파서리에 사는김종한(金鍾漢)(三七)의처윤재조(尹在祚)(二二)는 그의남편 김종한 이가 직업이업서서 가세가빈한함 을원망하며 항상남편에대한 태도 가너무나 냉정하며 불공하여 구바 과천대가 심함으로 언제나불화하 든중 지난십오일새벽에도 서로말 다툼을하다가 ... 가식도로 그의안해를 란자하여 ... 하엿다는데 ... 포되여취조중이라한다

化學工場用地의 作權을無償讓受
收入은公共事業에

【興南】 흥남읍 유정리(柳亭里)와 후농리(厚農里)일대에 조질계(朝窒系)화학공장(化學工場)을 건설할목적으로 매수한토지 약이십만평은 그후여러가지사정으로 그계획을변경하야 본궁(本宮)으로공장을옮기여 가고 흥남공장의 토지는 금년봄안에 극히적은 몇만여평을 오직사원사택(社員舍宅)을건축하엿고 그 나무기게된 남어지십사만여평을 그 학교 후원회고문인 가등(加藤)흥남서장은 흥남공보에중축비에 일조라도될가하고 해토지심ㅅ만여평을 무상으로 금년소작권을어더 이것을경작케하여 그수입에대부분을 공공사업비에 쓰고저 지난칠일오후두시부터흥남공립보통학교내에서전소작인과전지주 일동을모아여러가지를토의한결과 소작료(小作料)의사분의일은그소작인에게 도로주고 남어지사분의 삼을 공공사업비로쓰기로하되 그 대부분을 공보교중축비에 긔부하고 그여분으로 각사설학술강습소 기타 공공사업에쓰기로 결정되바 작기재씨를 소작료 사정(査定)위원으로 천거하야 서장의자문에응하여 케한바 흥남공보후원회로서는 물론 일반사회에서는 금번가등서장의 알선에감사한다고 한다

安興奎 韓在謙 徐斗薰 李弘植 金鳳翰 金龠奎 黃圭憲

平壤基靑主催 兒童洋服講習

【平壤】 평양긔독교청년회(基督敎靑年會)에서는 이십이일부터일주일간 동회관상층에서 아동양복강습회(兒童洋服講習會)를개최한다는데 강사는사계에고명한 리재숙(李在淑)의생이며 첫가을는 일월 시간은매일오후한시부터 다섯 시까지로 마히참가하기를 바란다 고한다

千餘戶災民에게 種穀을無償配給
安水面有志의特志

【咸興】 함남홍산군 안수면(安水面)주성칠(朱性七)외 일백삼십오명은 재작년과 작년의량년도에거듭닥처온 미증유의 홍작으로면내일천여호의 농가에서 초근목피로 겨우연명하다가 춘긔를당하여농사를할려고 하여도종곡(種穀)이업서 속수무책의지참경에잇는상에동정하야 현금빌백팔원과 종곡십일석구승을 거출하여현금은종곡으로바꾸어전면내농가에배부하여주엇다는데해면내농민들은 이러한특지에감격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工事勞賃傳票를 無料로交換해

당시방 일대의 부흥공사가 실시되여 락동강 치수공사、도로개수공사、수리조합 부흥 공사등이 진행되여 잇슴으로 이들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가 매일 수천명에 달하는대 청부업자들은 그로임(勞賃)을전표로지급하고 일정한기간이아니면 교환치아니함으로 로동자들은 못처럼버리 돈을 가지고도당장의 곤궁을면치못하야 이것을할수업시 현금화로환하게되는 일활내지이할을 할인하게되는대는 로동자의고통이 막심하던바 조합본소와가설지소(加設支所)량처에서조합원이 여부를 물론하고 모든 로동자 노임전표를 무료로교환하여주고 현품이나 현금을 가지고오는자가 매일수백명에 달하야일반의 환영이 크다고한다

洛東江大增水

【梁山】 수해지 락동강연안의 주민들은 물이라면정신을 못차리는데 지난십사일부터 십오일까지에 나린비로 락동강물은 삭덕메들이나 증수되엿는데도 모처럼저지어노은보리까지가또 홍변을맛나지 아니할가하야우려중이라한다

大山産業組合의 頹勢挽回喜消息
組合員이五百名增加

【進永】 창원군 대산산업조합(大山産業組合)은창립이후 사업시설에착수하자마자 곡물가공판매(穀物加工販賣)에실패하야 오전원이갈려가게 되엿는데 설상가상으로 소화구년 대홍수를인하야 여지업시파멸을 당하엿슴으로 일시조합의존폐문제까지 이러낫든바 당국의적당한계획과 리사의열심노력으로 부흥에매진하야 생산품원료공급과 구매사업등에 적극적활동의결과 일반조합원의리익은물론 년도말 조합초의계산서에 다대한흑자를 내이여서 평시의적자까지 보충하게되엿스며 조합원도 전년보담 오백여명이 증가되엿다고한다

枇峴山火

【枇峴】 평북의주군비현면당상동(枇峴面堂上洞)거문산(巨文山)에는 한발이 심한이때에 산화가 일어나서 수백정보의삼림이 수삼일불공하야 연소중인데 당지소방조에서는 주민들인솔하야 가지고 방금진화에 노력중이라한다

人口四十萬目標 大平壤都市計畫
都市計劃調查員五名을두어 經費八千圓을計上

【平壤】 서조선의웅도평양은공업도시로서 놀라울만한 발전을하여 최근수년간의 통계를 보아도매년 상당한인구가 증가하고 잇는현상이므로 최근실현될 제이차부흥 구역확장을 따라 오개년후에는 인구이십오만을 무난히 돌파할것을간파한 평양부에서는 부세발전에대한 재료를 조사키위하야금번도에 조사키로팔천원을 계상하고 토목과(土木課)안에 도시계획조사원(都市計劃調查員)다섯명을두어 토목과원과가튼부내의전반에대한상세한 조사와 측량(測量)을하기로되엿다

도한 아부(阿部)토목과장은 경성기타 선진도시의 도시확장계획상황을 시찰하고 즉시평양부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를조직하여 조사와측량에 착수케되엿다

그런데 금번의 도시확장계획은 대규모의것으로 삼십년후의 평양의인구가 사십만을 돌파할것을목표로 공장지대(工場地帶)주택지대(住宅地帶)상업지대(商業地帶)의세가지로 구분하여 대평양도시건설에향하여 박자를 맛추기로되엿다한다

라디오

二十一日(日曜)

◇午後六時 (東)管絃樂(韓敍朴)
組曲「아이차지느三부작」作曲
一、그라스、아드、파르나(?) 二、코끼리의자장가 三、人形의세레나—드 四、눈은춤추고잇다 五、작은牧者 六、졸리운人形의춤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니콜라이수피—르만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孝는百行의根本 洪淳鎬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 歌曲 一、界面樂 二、弄 三、羽樂 四、界樂 五、編 文明仙 金鳳仙 洋琴 金相淳 大琴金永根 杖鼓金一宇
◇同八時二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楚漢歌 二、唄調 沈淸歌中 沈奉事皇城올나가는데 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八時五分 獨唱과合唱 一、合唱 ... 노—봉作曲 二、獨唱 復活 ... 三、合唱 가、갈보리… 四、獨唱 ... 가、눈물떠라… 나、흰옷입은무리들… 큰손作曲

二十二日(月曜)

◇午前○時五分 ...
◇同二時 家庭講座 家庭과音樂 洪蘭坡
◇同六時 童話 말하는거울 梁在應
◇同六時二五分 産業뉴—스 ...
◇同七時三〇分 衛生講座(一) 醫學的利用
◇同八時 演劇 ...

曆

四月廿二日(月) 舊三月(二十日) 戊辰·木·畢·除
▲淸明 六日(舊三月初四日)
▲穀雨 二十一日(舊三月十九日)

그女子의一生 【84】
春園作 夕影畵

렌듸스부인은 만흔 설명을 아니하엿다. 서양식으로 다만 깨닷을 긔회를 주어서 당자가 스스로 깨닷기를바라는것이엇다. 그러나 금봉이나 숙희에게는 그러한 설명구절이 뚝 바로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아니하엿다. 숙희의 마음은 조백경에게 대한 사랑과 세속적인 여러가지 욕망에 차서 진리를 바다들이는 근본조건이 되는 부인 마음이 되지못하엿다. 하나님 나라와 올을 구하기 전에 병걸의 사랑을 구하지아니하면 아니 될것 가탓다.

금봉의 마음은 비교적 부엿스나 이 가르침을 바다들이기에는 넘어도 어렷다. 그러나 모든것을 하나님께 맛기라는 말과 공중에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는 말은 퍽으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흐르도록 감격되엇다.

『언니』

하고 금봉은 렌듸스부인의 집에서 방에 돌아오는길로 숙희더러,

『나도 렌듸스부인처럼 하나님을 잘 미덧스면 조켓서. 모든 근심걱정을 다 하나님께 맛기고 오식긔도와 깃븜으로 살아가면 작히나 조하.』

하엿다.

『홍』

하고 숙희는 코웃음을 하면서

『우리도 렌듸스부인만한 나이 되면 그러케 하지. 렌듸스부인도 졀머서는 사랑도 햇기에 남편도 잇고 자식도 나핫지, 하하하』

하고 자포자기하는드시 침대에 나가잣바진다.

『언니, 엇재 그러케 되섯소?』

하고 금봉은 숙희를 향하야 놀라는 빗을 보인다.

『왜? 내가 엇더케 되엇니?』

하고 숙희는 싱긋싱긋 웃는다. 『고 어린것이 엇더케 내 속을 들여다보나』 하고 흥미를 늣긴 것이다.

『언니가 방학전에야 왜 그랫수? 긔도도 하고 좀 양전햇지』

『마찬가지야, 지금은 내가 양전하지를 안쿠냐.』

『어듸 양전해요?』

하고 금봉은 숙희가 네 활개를 쭉벗고 침대우에 잣바진 꼴을 본다.

『에그, 요것이 여우야』

하고 숙희는 금봉의 손을 끌어당기어 억지로 그몸을 끼어안고 수업시 입을 마추엇다. 마치 끌어오르는 열정을 못 이기는것 갓다. 숙희의 얼굴은 또 거웟다.

엄마 이러다가 숙희는 금봉을 노아주고 울기를시작한다.

어번 방학에 조선 돌아가서 숙희는 마츰내 병걸에게 몸을 허하엿다. 허하엿다는것보다는 숙희가병걸을 정복하엿다. 학제가 봇들러간 뒤에 숙희는 병걸의 려관을 차저가서 피신한다는핑계로 병걸과 함께 석왕사에가서 닷새동안이나 하방생활을하엿다. 그때에 숙희는 오직 열정 덩어리엇스나 병걸은 다만 숙희가 원하는대로만 응하여주는 냉정한 사람이엇다. 숙희는 병걸의 마음속에도 제속에 타는 불과 가튼 불을 붓처노흐라고 가진수단을 다 썻스나 그것은 모도 효과가 업섯다. 병걸은 언제나 래연하고 언제나 냉정하엿다.

『좀 힘껏 (안아주어요』

하고 숙희가 보채면,

『그러지』

하고 병걸은 힘껏 안앗다. 병걸이가 으스러저라 하고 저를 안아줄 때에도 숙희는 병걸의 팔에 아모 열이 업슴을 분명히 늣겻다.

『이 냉혈동물!』

하고 숙희는 병걸의 따귀를 부첫다.

『어허 삼십칠도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병이게?』

병걸은 이런 소리를 하고 웃엇다. 숙희가 보기에 병걸은 정은 절대로 삼십칠도이상은 아니 올라갈것 가탓다. 그것이 숙희의 불만이오 슬픔이엇다. 그래서 숙희는 병걸에게 술먹기를 권해보앗다. 술이 취하면 좀 어룰해질뿐이지 그 래연냉정함은마찬가지엇다.

『이 화상에게는 열정은 업나 보아!』

하고 숙희는 병걸을 꼬집엇다.

『열정이란 병이라니?, 숙희야 말로 해열제를 다다히 자서야 겟소』

하고 병걸은 웃엇다.

숙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울엇다.

금봉은 숙희의 어상야릇한 행동이 가엽섯다.

그날 밤부터 숙희와 금봉은 한 침대에서 잣다.

淋疾로苦痛하는이여보라!

淋疾治療新藥
特許 노보노—루球
(全國著名病院採用)

본제노보노—루구는 여러의학박사가 실지로시험하야 추장하고 주명한 가장들림업는림질약입니다 즉 신용과 약효로 팔리는약인동시에일본전국유명한 병원과 대학병원에서도 이것을 채용하시는 유명한 림질약이니 세상에서 내가 파는것이제일조타고 떠들고 과장하며 풍떠는 그러한약과는다릅니다 비하면 유식한 사람과무식한 사람과 갓습니다

즉 본제는지통、소염、살균、수렴、리뇨작용이현저하야 여하한 완고의 림질이라도단시일에 치료가됩니다。남녀 급만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오좀소태、남녀방광염、남자의 산증(고환염)섭호선염등기타림독으로되는 여러가지병에가장 특효가잇습니다

本劑는高木、井尻兩博士 臨床實驗結果 治淋內服藥으로서 醫治作用이的確하고 副作用이絶無한 優秀藥으로認定되엿고 全國著名病院의採用을밧고잇는 完全製劑입니다 一時患者를誘惑하는 誇張廣告의藥과는 判異한것이니 特히此에 注意하시고合理的製劑인 노보노—루의服用으로 淋疾을根治케하십시오

一、胃腸障碍及腎臟刺戟等의 副作用이絶無
一、止膿、鎭痛、消炎、殺菌、收斂、利尿作用等이 顯著하야根本的效力이무엇보다的確

노보노—루球에對한 試驗結果
醫學博士 井尻辰之助

國産內服治淋藥노보노—루와同種品과의 藥效優劣에就하야臨床上大院及外來患者二〇八人에게試用한結果大略如左함

一、國産內服治淋藥노보노—루를一四六例의 急性尿道淋에用한바尿가澄明하기까지의 平均服用日數는大約十三日餘로서效果를表보三四例中其六割以上은 服用日數十日以內에其內服을中止하엿거나又는他의合倂症이잇는것뿐

二、本劑를亞急性尿道淋五〇例에內服케한바 尿가澄明하기까지의平均日數는大約四日에不過하다그리고 其效果업는七例中六例까지는內服을中止하엿고合倂症잇는二例뿐이다

三、總患者二〇八例中胃의刺戟症狀을 呈한것은一例도업고他臟器의障碍를訴한것은二四例로서大約一二五%에不過하다

包裝及藥價
三〇球入 一·〇〇 五〇球入 一·五〇
一〇〇球入 二·七〇 二〇〇球入 五·〇〇

發賣元 藤澤友吉商店京城支店
本店 大阪道修町

KN—64

團成社
四月二十一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폭스모든朝鮮에紹介特作日本版
空前의瓦斯
祝盃의노래
◆大阪朝日世界의뉴—스
次週二十六日封切豫定
— 期待 —
世界의마지막、어린날밤색기의 ...

中央館
四月二十日부터晝夜三回特別大興行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極樂코그騷動
透明人間
弱きものよ汝の名は女なり
心の綠野
お江戶春化粧

優美館
四月十八日낮부터 特別興行
活劇 鐵火의巨人

朝鮮劇場
金色夜叉

日曜特輯

山頂에서 부른 戀歌

白夜生

—山을오르든다—

생각만해도 가슴속이시원하다 醍醐에 파뭇처 그것이 조흔일인지 납뿐일인지 또는 그것이 사람이 할일인지도 모르는 일로 靑春을 사리여버리고 아프로 苦痛울것밖게업는 나로서 事務室 窓으로보히는 山머리가얼마나 나의맘에그무엇인가를 치밧치게하는지모른다

우울한때 슬픈때 憤怒한때 窓으로보히는 저ㅣ山꼭지가 나를 굽어보는듯 나는내맘의 머리를 그압헤구브리게된다

내가萬若 저노픈山꼭대기에올라 이長安을굽어본다면 아모것도아닌 微物인 이都市의사람들을 얼마나 비웃고 십흘가

◇

나는 저ㅣ山머리를 볼때마다 나의 녯날 그어느때를 回想케된다

그때 아조 새파랏케젊은나는 펵도 로맨틱한生涯로 내自身을 껄고갓섯다

나는 그어느女性과 조그만힘에ㅣ말하자면 그때에잇슴직한두사이의曲解로 그女人의거틀떠나기위하야 北行車를탓다

어듸서 내린다는 작정도업시 新義州까지는 표를사들고 탓스니까 車안에서는 어듸서내리거나 내自由엿다

그래서나는 中途에서 車를나리엿다 ××의 조그만 停車場을나와 그적은市街를 한바퀴돌고는 旅館에드럿다 여긔서 몃칠지내보다가 이곳이실증이나면 어듸고또떠나보라하엿다

그날밤 나는 등산물미테드러누어 지나가일을 생각해보앗다 우숩기도하고 애처럽기도하엿다

—그女子는 지금쯤은 울고잇겟지 나를원망할터이지—

나는 그女子가 몹시에 가엽슨생각이낫다

엇지나는 그섬약한 녀자에게傷處를주랴하야서 나는그에게편지를썻다

—오시요 이곳은 고요하고정하고 아름다운곳이외다 만약당신이 이곳에오면 우리들의 그적으면서도 큰 미묘한감정이 사러질것이외다 오시요 나는 당신께 사과하리다—

대개이런뜻으로 편지를 써서붓치자 사흘만에 그女人이 조그만 핸드빽을들고와다 그녀자는놋는낫치엿다 그녀자와 나와 방에서 정심을갓내여술때는 그가 이러한안체 진흥위로보이는 눕흔산꼭가리키며

『픽 노픈산이로군요 한번올나스면』 하엿다

『당신이 저산에오를힘이게시겟소 험하다는데』

『왜요 오르라면오르지요』

『그럼 내일함올라볼가요』

이래서 우리는 그이튼날 그산을오르게되엿다

맛침 이때에 어느상사인의일행도 가치오르게되엿든것이다산미레서 이들을맛낫슬때 피차에 동행을어더 기뻐들하고 친해진것이다 우리는 암이 세시간이나올나서 산머리에 스게되엿다 그女子는 몹시숨이차서햇스나그러케 弱하게본 그女人은뜻밧게 다리가튼튼하엿슴을아럿다

『보시요 우리가 이山에올라보면 저ㅣ울밍송밍한 山이얼마나 미약하게뵈이나요』

『그래요 이보담더놉흔山을오르면이산도 그러케보힐것이지요』

『그럿치요 여보시요우리는만날 크게 놉게 가집시다 그러면우리는 아프로 무슨일에든지 웃고 대할것입니다 그리고 큰일도할수잇슬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시이山을나려와 旅館에서 장급잘때 그女人의자는 얼골에 微笑가떠오른것을보고나는 그의 손을 쥐고 그얼굴을 드려다보고 우섯다

△

옛날일이나 지금도 그때의일이 눈에선ㅣ하다

—山을오르든다—

얼마나 꿈속에서 본듯한爽快한일일것이냐 그러나 지금에 내가山에오르면 어느谿谷사이에 어는 봉오리에서 그의亡靈을볼것인가

御嶽山의 하로ㅅ밤

黎泉

山도 朝鮮의山은 崔巍磊落하여서 바다에가는늣김과는 아주 달느지마는 日本의山은 아모리 놉하도 그꼭데기까지 鬱蒼한 常綠樹가 욱어저서 맛치 어로만질수도 잇스리만치 부드러운늣김을주는것이 잇다。

그러나 엇더한 山이든지 山그것만으로서는 아모리 하여도 빽빽한것이 餘裕잇는늣김을주지 못하는것임으로 거긔에는 반드시 谿谷이잇서서 한줄기의 맑은물이 山구비를 싸고돌면서때로는바위너덜에 부다처구을이깨여지드시 부서지기도하고 때로는남쪽가리 고인물이 용도리치는소를짓는데도잇서야 山으로서의참다운맛이잇는것이다。

나는작년가을、그중에도 淸朗한날을골나서 四五人이 同伴해가지고 格에맛지안는『하잇킹』이나마東京에서 갓가운山岳地帶로 有名한 御嶽山에오르기로하엿다。이山은 奧多摩로드러가는어구에솟아잇는것인데

이山 險峻을찻차서 허리뒤갓흔 한오리ㅅ길을 따라올나가면 그頂上이 有名한 大菩薩峠로가는것이다。본래우리는 방문길도아니엿고 一定한 目的地가 잇는것도 아니엿음으로 발길가는대로 해정울기까지 작정하고 나선것이 얼마를갓는지 조그만한山村의 溫泉鄕에이르니 양쪽으로놉히소슨山에 이미 黃昏의빗혼 먹장과갓치짓터가고 산ㅅ골로흘너가는 가울를 소리는 새로히 차움게들녀올때이엿다。거긔서 다시더갈가 말가하고 주저하는판에 그위로부터 네려오는 멧자람의登山隊가 되는대로 나무가지를꺽거만든 짝테기를끄을며 묵어운 발자옥을 옴겨오는지라 그사람들의게 다시 더올나가면 잘데가잇느냐고 물엇더니 여긔서 一一三十里를가지안흐면잘만한데가업다기로 우리는거긔서 제일깨끗한旅館을定해서자기로하엿다우선靑褒을벗고땀을씻스뒤에溫泉에드러다나오니하로동안에 疲困하엿든것이금시에 사러지고全身에소사오르는爽快한생각이그야말로羽化登仙의境地이라고할가? 더구나 그旅館집이山빗탈에지은집이라、길가로 向한압골로부터아서는 二層밧게안되나 뒤문는 충층이 매여올닌 欄楯와가튼谿谷가 푸른구름이피여오르는듯이 뭉실뭉실하게솟히소슨 山을 압헤 대이고 그밋헤 맛바다 까지 보이는 一帶淸流발알을 씻처내려 가는지라 가벼운浴衣에『타올』하나만을 목에걸고 茫然히 藤椅子에걸터안젓스니 게으른듯、조을니는듯、내가 나를이저버린듯하엿스나 얼마를지낫든지 下女가와서 저녁을먹으라고 부르는바람에 이러서면서 나는 나도모르게 중얼거렷다。

山도 조타하고 들도 조타거늘
이조흔山水가 한곳에 메다맘가
어즈버 기리머물너 가지말가하노라。

이詩調는 내가일직이 누구의것을 보앗든것이 그대로 입에서 나와는지 또는 내스스로지은것인지는 나도모르는散句인것이다

저녁을먹고나서는 시내가으로 나가자고 짝대기만끄을고나서니 때는아마 中旬인지 西쪽산가르때이는 맛치「헤드라이드」를단듯시 환하게밝어오는데 동쪽산그늘은 아직도 水墨을풀려노은듯시 沈沈하며 그것도 맛치黑緞의주룸살과가티 어느구비는검푸르기도하고 어느구비는 회숨숨하기도한것을보면 아마 仲秋의밝은달도 아직未央의天際에떠잇는모양갓햇다。

시내가에이르러서는 一行이모다가 音樂家이고 詩人이 되엿는지 마음대로 부르는노래가압뒤ㅅ사에부다처 가물가물이 살어지는條橋이 지나간어런時節을 다시 불너깨우처주는때 대처로 누구나 自然의압헤이르면 마음놋코 어린냥을하면서도 붓끄려워할줄모르는것은 피드른 어른의마음에도 오히려 純眞한 童心이 숨어잇는것일가? 그러치안호면 自然의압헤서하는 어린양은 그대로 그「에코」가 自己의귀에돌녀와도다시는 남에게말을하지안는때문일가? 여긔에는 벌서 人間과人間으로서의 우리는 아모합말도업는것이고다만 두리번거리고 중얼대고 고합지는 그單純한動作만으로도 自然과 人間과는 말업는共感과 通情이되는것이엿다。

밤이느저서 旅館으로도라올때는 고흔이슬에 촉촉이녹은浴衣가 몸에감기는것을깨달엇다。

文學者로서 最初의登山家

[illegible] 高山에오면 [illegible] 름이는 그[illegible]大詩人「떤테」이라고 한다。그래서「떤테」의 [illegible]에 [illegible]을 바라「아라공」의 「피ㅣ라ㅣ」 三峯는 「카니고ㅅ」(二七八七米)에 올랏다고하는데 「떤테」의 作品에 「갈베」라는말의 [illegible]가진山岳은 「아페닌」의 山岳을 [illegible]이라고한다。

이 「떤테」의게서 [illegible] 山岳美의[illegible]에 다음으로 낫타난이가 또한 大詩人「페트랄카」인데 이는 詩人일뿐만 아니라、地理學者이고 또한[illegible]家이엇다

그가 一三三六年에 「아뷔니온」附近의 「몽 방투ㅣ」(一九一二米)에 登山한記錄은 當時、人心의自然에 對한態度를 描寫한것이라고한다。登山할때는 그아우『게랄든』와가치갓는데 그때는 [illegible]의美를차저서 登山을한다는것은 普通사람으로는 생각도못하는 危險한일이엇슴으로 登山을할때 그山頂에잇는 늙은牧者가 애써말녓스나 귀어혀 그山頂까지 올나가서 그 眼下에展開되는 호[illegible]의萬相과 壯壯大한山岳美에잇엇시 感激하엿다고한다。그리고 맛침 가지고갓는「聖아우구스틔ㅣ누스」의 懺悔錄에서 다음과갓흔ㅣ節을 읽엇슬때 그는 더恍惚의境地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은 정울나와 놉흔山과 넓은바다와 또한 洶洶한大河와星들의 가는곳을 바라보고 제自身을 이저버린다』는

高山의꼿

高山에 [illegible]

古調三章

長白山에 旗를꼿고 豆滿江에 말씻기니
썩은저선비야 우리아니 사나이랴
어떠타 凌烟閣上에 뉘얼굴을 그릴고
(金宗瑞)

◇

泰山에 올라안저 四海를 굽어보니
天地四方이 훤슬도 한저이고
丈夫의浩然之氣를 오늘이야 알괘라
(金宗瑞)

◇

이몸이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蓬萊山第一峰에 落落長松되엿다가
白雪이滿乾坤할제 獨也靑靑하리라
詩調類聚에서 (成三問)

■靈■山■靈■峰■ (寫)

半만본 金剛의絶景

一步生

朝鮮에 名山이 만흐되 일즉 만흔山을 踏破하지못한 나로서 이글을 쓰는것이 本意안인것이 나아닐까? 하는 疑懼도업는것이 안이로되 그래도 朝鮮名山의하나인 金剛雲峰에 발을드던드나이니만치 敢히이글을써봄가한다

×

金剛 山을 보히는구나 그風景에는 [illegible] 읽것이다。上의 雲峰이 구비 구비 소슨 [illegible] 이金剛은 그야말로『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의 一詩句를 詠嘆하지 안흘수업스리만치 이金剛의山岳美는莊嚴과 美妙의調和가 一幅名畵를眼前에 그려주는것이다

×

나는 不幸히 한번도 金剛山을 차즐 期會를 갓지도 못하엿섯다 겨우 一九三三年 七月에야 비로소 이靈峰을 더듬게되엿섯다

그러나 나는 金剛을 차즌것이靈勝이 그 첫재 目的은 안이엇다

나는 좀더 **世俗** 的인것을 떠나서 내平生을約束하는 嘉禮를이雲峰에 압헤서 맷즈러는것이이엇다

×

一九三三年七月! 나는 악수로 나리는 暴風雨를 무릅쓰고 京城驛을 떠나게 되엿다

七月二十九日! 이 이처지지 안는날 우리의 嘉禮는 몃몃同志들과함께 지내이게되엿다

×

나는 元來平凡한것을 조하하지안는다 그러기때문에 남이하지 안는일 남이 못하는일 좀더 다르게 좀더 獨特하게하려는性癖이잇다 그리하야안해의絶對 **反對** 임에도 不拘하고 나는 모ㅣ닝을입고 웨딩마치를마처 道化役者的 演劇을 하는現代式 式을避하며 金剛을 차저가서 좀더崇高한 精神으로 좀더 靈感的인 좀더 神秘로운 마음과마음이 合치는 그神聖한式을 하게되엿섯다

×

溫井里호텔의 하로는 꿈속가텃다 七月二十九日! 때는 仲夏라 都會의더위는 찌는듯 寒暖計의 水銀이 百度를 오르나리는때이엇만 雲峰山谷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산산하엿다。

나는 솜피듯한 저녁안개가山허리를 둘러싸고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모이락 헤이락 하는 山기슭으로 발을 옴기엇다。때는해저문저녁이라 발길을 더옴길수업서 나는 다시 호텔로 도라왓거니와 이 **雲峰** 絶景에는이리하야 [illegible] 日 松田海水浴場으로 가려든 나의豫定코ㅣ쓰를 變更하야 外金剛 山길을 더듬기로 하엿다

×

翌朝 우리一行은 溫井里서떠나 新溪寺 등을거어 九龍淵으로 옴기게되엇다

심비가 나리는 여름날 우리는 步武堂堂 자욱자욱 올라만가는 山길을 더듬어 진행이에 힘을주어가며 登攀하기 始作하엿다

우리는 飛鳳瀑나려 떠러지는 壯觀에 陶醉되여 발거름을 멈추고 眞珠潭 그비친 프른물에 피로된 눈을 慰撫하면서발길은漸漸 **高峰** 으로 옴기게 되다 우리는 正午나되여 九龍淵까지到達되엿다

九龍瀑서 暫時수이며 點心을畢한다음 壯嚴한百尺瀑布에 우리는 오즉허를차고 잇슬뿐이다 떠러지는물 허터지는汽沫 찬바람이 휘도는 瀑布의 周圍 咫尺에서도 말소리가 들리지 안흐리마치 요란한 물소리ㅣ얼골을씻고 손을씻고 또 발을 씻고 우리는 또다시 비사문 쇠사다리를 올라올라 上八潭으로 向하얏다

비는 안개 비로되 땀내나는 더러워진 속옷이 漂白되고 몸은 濕氣가 잇서도 氣分은明朗하다 그러나 新婚한 내안해의 발길이 더올라갈수업슴을 宣言한다 그리하야 우리는 이絶景 **金剛** 을다보지못하엿거니와 나는내청미 像긴혼이金剛을只 속것 잇지마하노라

春日小景 影夕

☆……망원경의매력……④

망원경(望遠鏡)이 필요한때도 잇지만 춘남녀의 망원경은 야릇하게 사용된다

男『조흔데 참조흔』‖아이참 썩 조흔데

女『아이 엇저면 엇저면』

新刊紹介

◀[illegible] [illegible]山著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三丁目一一日 [illegible]社發行 [illegible]東京一 [illegible]

◀[illegible] 上げる信心を得る法 [illegible]山著 東京市神田區[illegible]丁目一一 日本[illegible] 振替東京一五八六〇番 [illegible] 送料七錢

暴風前夜 (143)

咸大勳 作 金熊超 畫

떠나는이들(一)

봉후는 성희의 손에서 햇기엿다……

성희는 그편지를 읽기 시작햇다 오영희도 엽에서 성희읽는것을 보고잇엇다

『사랑하는 성희씨압에』

그것은 선민이의 편지가확실하엿다

『나는 지금 성희씨를 떠나갑니다 오랫동안이나 여러가지로 만흔사랑을밧고 또보호를밧고떠히지내며 상해진건강을 회복한뒤에 저는성희씨를 배반하고 멀리떠나가나이다 그럿트시 애겨주시고 그럿트시 사랑해주시든 성희씨에게 떠난다는 인사한마듸 조차 하지안코 나는 멀리 떠나가나이다 그러나 나는 떠나가지 안흘수가 업는 몸이외다! 감옥에서 바로 나오자 나는 다시 이길을 떠나야 할것이지만 사정상 그리 할수업는일이잇서 지금이야 떠나가게 되엿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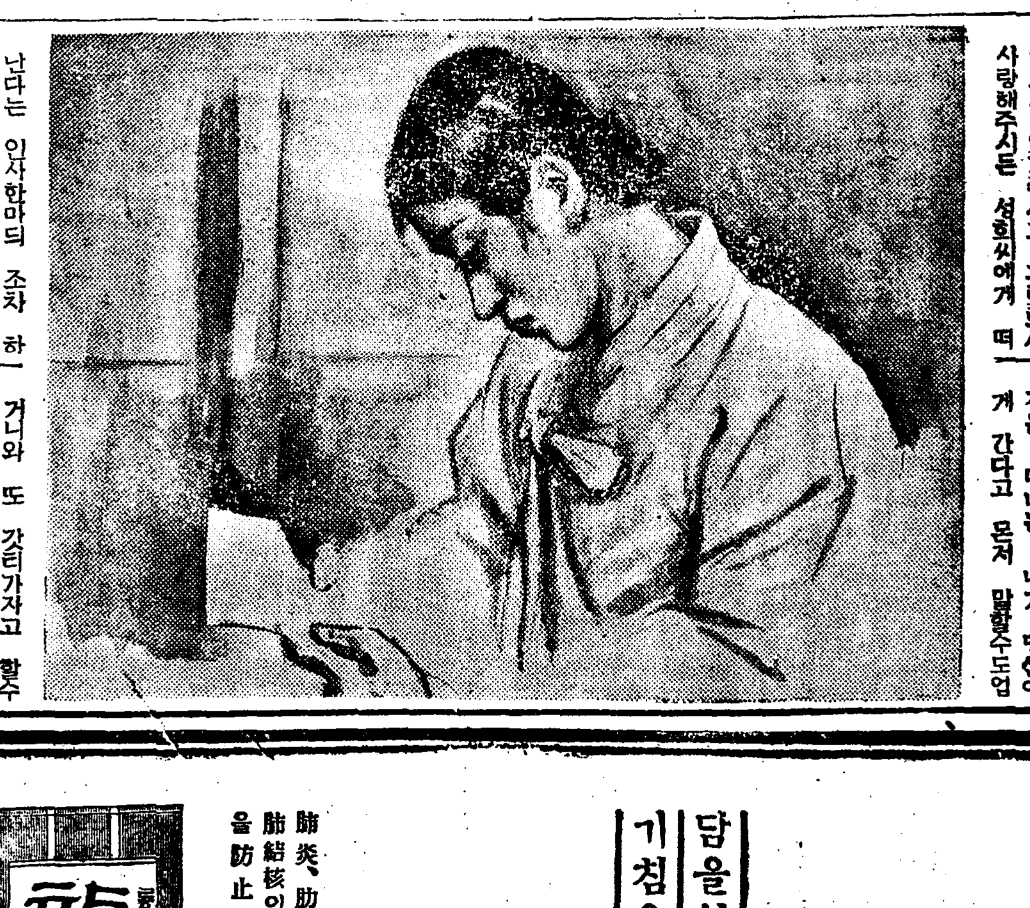
사랑하올는 성희씨!

성희씨는 나를 참으로 사랑해주섯나이다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잘리해 해주섯나이다 그리하여 나도 성희씨를 사랑하엿나이다 사오년동안을 사랑햇나이다 갇도서부터 감옥속에잇슬때까지 사모하고 사랑햇섯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부터나와 성희씨와아래웃집에 잇는동안 나는 더욱、성희씨를 사랑햇습니다『사랑은 거리(距離)에 잇다』고 아모리 제가 멀리서 사랑은 하엿다하드래도 갓가히 성희씨를 엽헤두고잇는것가티 그러케 열렬하고 또빠르게 사랑하여 지지는 못 하엿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말로 일마안되는 그동안 성희씨 업시는 살수업스리 만치 제가슴에 성희씨에 대한 사랑의 불꼿이 가득 피여잇섯나이다 그와 발거름을 가치하야 성희씨도 저를참으로 사랑해주섯나이다 그래서 겸프론 음사히에서 불리는 사랑을 속삭여도 보앗고 눈물은 짤로 손을 마조잡고 기뻐도 보앗나이다。……

우리의사랑! 그것은 령혼과 령혼이 진정으로 합친사랑이엇습니다。그리고 서로인격과개성과주의를 모ㅣ도 리해하는 참된 사랑이엿습니다 성희씨는어데로든지 당신을따려간다』고 내게말슴햇지오、그리고 나도 어느곳이든지 가려가자고맹서하엿습니다 그러나 저는이맹서를 깨치고 멀리가나이다 지금『그곳』에서는나를 기다리고 잇슴니다 나를 기다리나이다! 그리하야 이지울 떠나는 내가 당신에게 간다고 몬저 말할수도업거니와 또 갓티가자고 할수도업엇습니다 그것은 우리당에서는녀당원을 필요로는 할니다만 당원이 애인을 가지는것을 절대로 금지하나이다 애인을가진다는것은 일을완성할수가 업다는 증거라고하야 우리당원은 절대로 이성의애를 구하지안흠니다 이것은김숭엽선생이 정하신 당규제일조입니다 그리하야 나는성희씨를 진정으로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모는하면서도 성희씨를 버리고 나가나이다 아니 성희씨를 두고 슬슬히 가나이다 성희씨는 내가』는말한든것과 가티 누구보다도나를 가장 리해잘하는 사람인줄로 알고 또 우리○○당에도 절대 공명할만한 여성인줄은 잘압니다 그러치만 나는 성희씨를 두고가지안흐면 안될 처지에 잇다는것을 리해 해주십시오……나는 지금 상해로 바로갑니다 거긔서약 일개월 잇는동안 정세를살피려하나이다 그러나 그후에는 어듸로 갈지 알수업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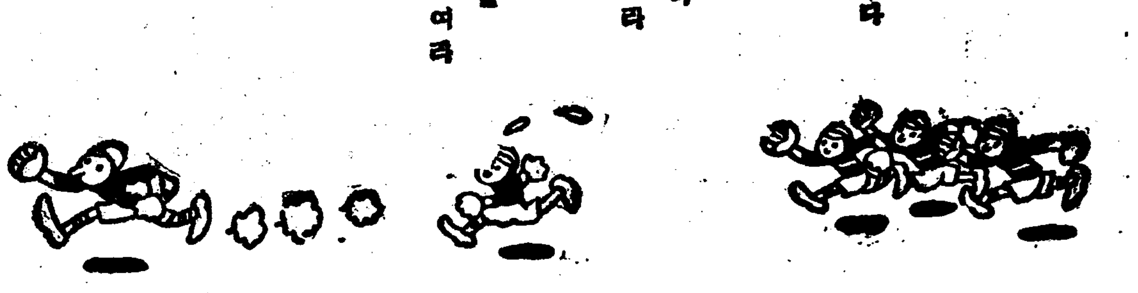
성희씨! 오해는 결코 말어주십시오……내가 조선의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성희씨는 조선의딸이라는 의미에서 형원히 우리는 형제로써 언약을 매저주십시오……』

성희는 눈물을 먹음고 여긔까지 편지를 나려읽엇다



痰咳喘息 治療의勝利

○봄이왓다
어데왓나
들에왓다
咽喉에도왓다
山에왓다
가슴에왓다
꼿은피고
새는노래한다
노래라뛰여라
뛰ㅣ뗘
한개의공을
한개의生命을
바라보고뛰여라
후레ㅣ후레
끄ㅣ근인
健康의
決勝點!



담을업새고 기침을鎭定

肺炎、肋膜炎 肺結核의 變症을防止함……

主効
/痰咳
/喘息
/感氣기침
/肺病기침
/血痰기침
/목쉰데
/咽喉痛
/百日咳
/痲疹咳

龍角散 (룡각산)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本舖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淺草(85)一〇八九·二〇三〇

▽全國各藥店에有홈△

A10-11